

백화점, 2030을 유혹하다



“젊은이의 지갑을 열리라”
올 가을 광주지역 백화점들의 화두다. 광주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올 가을 젊은 층을 겨냥한 브랜드를 대거 선보이는 등 하반기 MD(Merchandise·점내 입점 브랜드) 재편을 마쳤다.

이번 가을 MD 개편은 유명 연예인이 즐겨 쓰는 브랜드에 민감하고, 해외 브랜드를 좋아하는 20~30대 소비층을 겨냥했다는 특징이 있다. 온라인 등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해외 직구)가 늘면서 젊은 층의 백화점 소비가 줄어든 것도 백화점들이 젊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는 요인이다.

광주신세계백화점(대표이사 유신열)은 가을을 앞두고 최근 국내의 연예인이 즐겨 쓰는 ‘산타마리아노벨라’부터 메이크업 브랜드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 ‘바비브라운’와 미국 남성전문 스킨케어 브랜드 ‘렘시리즈’ 등 5개 신규 브랜드를 입점, 완료했다.

이번 개편 작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만 편중됐던 트렌디한 고급 화장품 브랜드를 지역 최초로 선보이며 유통채널을 호남권으로 다각화했다는 것이다.

실제, 광주신세계백화점의 올 상반기 화장품

지역 백화점 매장 가을 개편

광주신세계, 고급 화장품 첫 선

롯데 3곳, 60여개 신규 브랜드

품 부분 매출 신장률은 해외 직구 등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4%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이번 MD 개편을 통해 다양한 컨셉의 해외 유명 브랜드를 선보이며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산타 마리아노벨라’는 스킨케어와 향수 부문에 강점이 있는 브랜드이며 천연원료로 향수·에센스·기초제품·비누 등 화장품과 풀·차·허브·초콜릿·향료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 명품 패션하우스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화장품 브랜드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도 신규 오픈했다.

광주지역 롯데백화점 3개점(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아울렛 수완점·월드컵점)도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해 가을·겨울 매장 개편을 통해 60여개의 신규 브랜드를 선보였다.

롯데백화점은 신규 영패션 브랜드를 집중

적으로 유치하면서 젊은 감각의 남성 캐주얼 및 스포츠 브랜드를 늘려 20~30대 고객과 젊은 층이 보이는 중·장년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롯데백화점광주점에서는 작년부터 진행한 백화점 리뉴얼의 효과로 신규 고객 중 젊은 고객층의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백화점 측의 분석을 통해 지난 1~7월 구매 고객 중 이전에는 구매 이력이 없었던 신규고객의 연령대별 분석 결과 20대와 30대 고객 매출 구성비가 각각 19%와 36%씩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20대 : 13%, 30대 : 32%)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롯데백화점은 올 가을·겨울 매장 개편에서도 30여 개의 신규 브랜드 입점을 통해 젊은 감각의 MD 개편을 진행했다.

인기 아이돌과의 콜라보로 개성있는 디자인을 선보이는 브랜드 ‘비온드클로젯’과 수입 여성복 패션몰로 유명한 ‘아베그모아’ 등을 비롯해 스마트폰 케이스 전문 브랜드인 ‘디자인스킨’ 등을 입점했다.

또 ‘김수현 신발’로 유명한 ‘팔라디움’, 스포츠 브랜드 ‘스파이더’ 등을 오픈할 예정이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지노위 “금호타이어 중재대상 아니다”

“사측 일방적 중재신청”

파업손실·파국 우려 목소리

금호타이어 노사 분규와 관련, 사측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신청한 중재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노위 중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파업에 따른 손실과 파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일 금호타이어 노사와 지노위에 따르면 지노위는 이날 사측이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사측의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내려지는 각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조정 절차 과정에서 ‘노사가 좀 더 교섭하라’는 의미의 행정 지도와는 다른 것으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신청한 점에서 이를 받아 들일 경우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노위 중재 신청은 노사가 함께 신청해야 함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사 간 단체협약을 어긴 것이고, 노사 간 자율협상을 위해 폐지됐던 직권중재를 되살리는 것으로 보는 노동계 시각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지노위가 사측의 중재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지노위 중재는 없던 일이 됐고, 중재가 개시될 경우 예상됐던 15일간 파업중지와 이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금호타이어 노사 분규는 지노위의 이날 결정으로 오히려 노사 간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급 일시 지급, 임금 인상 폭 등을 둘러싸고 16차 분교섭을 진행 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양우건설, 남평 강변에 ‘그림같은 아파트’

‘양우내안팎 리버시티 1차’ 835가구... 모델하우스 개관

양우건설은 4일 나주 남평 강변도시 B1블록에 공급하는 ‘양우내안팎 리버시티 1차’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

‘나주 남평강변도시 양우내안팎 리버시티’〈조감도〉는 총 부지면적 8만8378㎡인 나주 남평강변도시 B1(4만2745㎡), B3(4만5633㎡) 2개 블록에 총 1700여 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나주 남평강변도시 내 단일 브랜드 기준 최대 규모로 오는 4월 1차 공급으로 835가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23층, 8개 동으로 조성되며 전 가구가 59~84㎡의 중소형으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 ▲59㎡ 타입 264가구 ▲72㎡ 타입 180가구 ▲84㎡A 타입 174가구 ▲84㎡B 타입 90가구 ▲84㎡C 타입 127

가구 등이다. 이 중 84㎡B 타입에는 ‘4.5 Bay’가 적용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어린이 놀이터, 작은 도서관, 휘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경로당, 코인세탁실 등이 갖춰진다.

B3가 들어서는 나주 강변도시 B1·B3 블록은 동쪽으로 영산강 지류인 드림강이 흘러 강변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는 남평초, 남평중, 광남고 등이 위치하고 있다.

전남 서북권 중간 거점도시인만큼 나주 강변도시에서 나주 혁신도시나 광주 남구까지 모두 차량으로 10분 도달이 가능하다. 모델하우스는 광주 지하철상무역 2번 출구 인근(광주지 서구 마북동 164-8)에 마련된다. 분양 문의 1600-2770. /김대성기자 bigkim@

새얼굴

“소상공인에 문턱 낮은 은행 될 것”

송용민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장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계기로 새롭게 출범하는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장에 송용민(58·사진) 대표(전무)가 선임됐다.

앞서 지난 1일 KEB하나은행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임직원과 함께 무등산 증심사를 찾은 자리에서 송 대표는 “집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

대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여수 출신이며 여수상고, 인하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77년 서울은행에 입사해 서울은행 기업분석실 신용조사역, 심사부 부부장, 여수지점장을 거쳐 하나은행 사당동지점장, 경기영업본부장, 호남영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오광목기자 kroh@



광주은행 ‘기술창업기업 공동발굴 캠페인’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지난 5월 광주은행, 전북은행 및 기술보증기금이 맺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기술창업기업 공동발굴 캠페인’을 실시한다.

기간은 오는 11월말까지며 광주·전남 소재 창업후 5년 이내 기술혁신형기업,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을 대상으로 펼쳐진

다. 광주은행은 이 캠페인을 통해 기술금융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500억원 지원을 목표로 지역 내 기술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출금리를 0.5% 범위내에서 우대하며 추가 신용대출 지원 및 기업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15.53 (+0.31)
- ▼ 금리 (국고채 3년) 1.67% (-0.02)
- ▲ 코스닥 678.25 (+0.23)
- ▲ 환율 (USD) 1190.30원 (+9.60)

수완지구 상가 매매
〈4층중 3층 / 즉시입주가능〉

85평

모아 A.P.T 앞 (6천세대)
상권 밀집지역
→ 월수익 180만

매가 3억 8천만
(보 3천, 용 2억5천만)

상가매매

- ① 상무지구 정연오피 상가 (상무지구 한국은행앞)
→ 매가 1억3천만(보 1천, 용 4천5백만)
- ② 광산구 월계동 1층 40평(1층 가격 최고 저렴)
→ 매가 1억5천만(보 800만, 용 8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2층상가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나주 혁신도시 10분!
나주역 7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6칸 올림대, 2층 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① 북구 우산동 안보화관 상업건물 7층사우나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14억5천	⑤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상무롯데마트 앞) 월수익 45만 매매가 8천만
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코너, 내부 깨끗) 월수익 45만 매매가 9천만	⑥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상무롯데마트 앞)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⑦ 광양 상아아파트15평 (상기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④ 서구 생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7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7층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월수익 95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매가 14억 5천 (보 2억, 용 6억)

010-7384-7800 / 010-6670-9800